

돌·흙 등 자연친화 소재 사찰 담으로 좋아

담장(2)

사고석담장

사고석담장은 사고석(四塊石)으로 쌓은 담장을 말한다. 사고석이란 한 변이 5-6치(약 15-18cm) 가량 되는 정방형 돌인데, 사고석이라 이름붙인 것은 한사람이 네 덩어리를 한 집에 질 수 있는 정도의 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사람이 두 덩어리를 한 집에 질 수 있는 괴석은 이괴석(二塊石)이라고 한다.

사고석담장은 사고석을 벽돌 쌓듯이 접점이 올려 쌓은 것으로 줄눈은 석회반죽을 쓰며, 내민줄눈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고석담장은 보통 장대석을 2-3단 정도 놓고 그 위에 사고석을 쌓아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심미적으로는 조화의미를 얻는다. 담장 위에는 기와를 얹는데 궁궐에서는 서까래를 걸어 목조건물과 같은 방식으로 지붕을 만들어 고풍격의 담장을 만들기도 한다.

사고석담장은 품위가 있으면서도 우아한 아름다움을 주는 까닭에 주로 궁궐의 바깥 담장에 많이 도입하였다. 권세가 있고 부유한 사대부가의 담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찰의 경우에는 사고석담장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왕실과 연관이 있는 사찰에서는 간혹 사고석담장을 쌓아 그러한 인연을 길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진관사의 담장을 꼽을 수 있다.

돌담

돌담은 자연적으로 쌓은 담장을 말하며, 돌각담이라고도 한다. 돌담의 주재료가 되는 자연석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로 이것을 간단히 가공한 후 이를 맞추어 쌓아올리게 된다. 돌담을 쌓을 때에는 잡석과 회를 섞어 다진 기초 위에 자연석 지대석을 설치하고 그 위에 담장을 쌓는데, 아랫단에는 큰 돌을 사용하고 위로 올라가

면서 점차 작은 돌을 사용하여 구조적으로 안정된 담을 만들게 된다. 뒤채움은 잡석, 와편, 진흙을 밀실하게 넣고, 공극이 없도록 한다. 이것 역시 구조적 안정성을 얻기 위한 방법이다. 면석의 뒤편리는 긴 것보다 짧고 교차되도록 하며, 모서리돌은 면석보다 크고 뒤편리가 긴 것을 사용한다. 담장 위에는 기와를 얹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다. 기와를 얹지 않는 경우에는 상부를 잘 마무리하여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돌담은 여러 가지 규격의 돌을 가지고 열기설기 쌓는 경우와 유사한 규격의 돌을 사용하여 가지런히 쌓는 경우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를 일반적으로 돌각담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돌담은 돌을 가공하지 않고 자연상태 그대로 사용하며, 뒤채움없이 전·후면이 맞닿도록 자연스럽게 쌓는다. 이렇게 쌓은 돌담은 시공하기 좋아 산지사찰에서 많이 도입했다. 불규칙하지만

개천서 돌 수집해 비스듬하게 리듬감있게 쌓아올린 운문사담 궁궐·사대부가 사고석 담장은 왕실 인연있던 진관사도 조성

자연스러운 미감을 얻을 수 있어서 산사의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후자의 경우는 일반적인 돌담쌓기 방법으로 시공하게 되며, 가지런하고 안정된 미감을 얻을 수 있어서 좋다. 사찰의 경우에는 사세에 따라 전자와 같은 돌각담을 쌓기도 하고 후자와 같은 가지런한 돌담을 쌓기도 한다.

돌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관룡사 선암사 송광사 화엄사 등 매우 많다. 운문사 돌담은 주변을 흐르는 개천에서 수집한 돌을



토석담은 돌담과 더불어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면서도 산지사찰과 분위기가 잘 어울린다. 사진은 직지사 토석담

각도를 주어 비스듬히 눕혀서 쌓았는데, 각 층마다 방향을 달리하여 리듬감을 주었으며, 전체적으로는 특별한 무늬를 보는 것 같아 흥미롭다. 특히 이 돌담은 사중의 스님들이 직접 쌓아서 만든 것으로 스님들의 섬세한 디자인 감각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작품이다.

토담

흙을 이용해 판축기법으로 만든 담장이

다. 판축기법이란 목재로 담장 폭에 맞도록 틀을 만들고 여기에 일정한 높이로 흙을 채워 다지고, 다시 흙을 채워 넣고 다지기를 반복하여 마치 시무떡 만들듯이 쌓아 올리는 방법을 말한다. 담장표면은 목재가 푸집을 때어낸 그대로 두기도 하였지만 빗물에 씻기지 않도록 마감하기도 했다. 비록 토담이라 하더라도 기와나 초가지붕을 얹기도 하여 멋을 부리기도 하였다. 우리 사찰에서는 이러한 흙담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으나 일본사찰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토석담

흙만으로 쌓은 토담은 빗물에 약하고 구조적으로도 취약하여 수명이 길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의 작은 돌을 섞어 쌓기도 하는데, 이를 토석담이라고 한다. 토석담장은 지면에 닿는 부분이 빗물에 씻겨 나가지 않도록 큰 돌을 2-3단 쌓아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위에 담장을 올리기도 한다. 돌담과 마찬가지로 토석담 상부에도 기와를 얹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기능적 목적도 있고, 멋을 부려 장식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우리 사찰에서는 돌담과 더불어 토석담 역시 흔하게 볼 수 있는 담장으로 산지사찰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친화력이 높은 담장이다.

생울

생울은 울타리에 나무를 심어 담장을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울의 재료로 썼던 나무는 가시가 있는 탕자나무가 많았다. 생울로 쓰는 나무는 지엽이 밀생하고 나무 아랫부분에서부터 가지와 잎이 왕성하게 자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 궁궐에서는 취병이라는 장식적 생울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취병은 시누대를 엮어서 일정한 높이로 구조체를 만들고 그 전후에 키가 낮고 지엽이 밀생한 키 낮은 나무를 심거나 덩굴식물을 올려 여름에는 푸른 잎과 꽃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취병은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장식적이면서도 기능적인 생울이다. 동궐도에 보면, 창덕궁 후원의 주합루 들어가는

아수문 좌우에 취병을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지금은 동궐도의 그림을 토대로 취병을 복원하여 아름다운 옛 경관을 볼 수 있다.

바지울

바지울은 갈대나 옥수수대, 싸리, 대나무 등과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일정한 모양이 생기도록 엮어 만든 담장이다. 바지울은 생울과 함께 서민들이 즐겨 사용했던 울타리이다. 특히 싸리나무는 한국의 산야에 흔히 자라는 나무로 잔가지가 많고 탄력이 있어 울타리재료로 인기가 있었다. 민가에서는 늦여름이나 가을에 싸리나무를 베어다가 발처럼 엮어 싸리울을 만들었다. 사찰에서도 이렇게 싸리나무나 대나무를 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사라져 찾아보기 어렵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사찰의 경우 사고석 담장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진관사처럼 왕실과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발견할 수 있다.



운문사 돌담은 사중 스님들이 직접 쌓아 만든 것으로 스님들의 섬세한 디자인 감각을 살릴 수 있다.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임시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हे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